

광일·무등리그 4강 진출팀 확정

1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무등기 1주차 전적
□광일리그 8강전(11일)
◆1경기 (5회 콜드승)
목포 블루제이스 18 0 10 - 10
송원 블루제이스 00 1 00 - 0
▲승리투수 : 박문욱

◆2경기 (5회 콜드승)
썩쓰리 000 10 - 1
첼린저스 101 43 - 9
▲승리투수 : 나영석

◆3경기 (5회 시간제한승)
THE J 012 70 - 10
저저스 000 50 - 5
▲승리투수 : 조진훈

◆4경기 (6회 시간제한승)
석산고야구단 310 000 - 4
스파이더 100 020 - 3
▲승리투수 : 조정훈

□무등리그 8강전(12일)
◆1경기 (6회 시간제한승)
뉴욕 야시장 110 010 - 3
피지컬 000 08 - 8
▲승리투수 : 김대현

◆2경기 (4회 콜드승)
파죽지세 16 18 - 16
BFB 000 0 - 0
▲승리투수 : 이영후

◆3경기
센프렌즈 101 0000 - 2
파트너즈 000 0000 - 0
▲승리투수 : 양하성

◆4경기 (6회 시간제한승)
뉴욕 000 100 - 1
우리OA가구 310 01 - 5
▲승리투수 : 김명주



11일 함평야구장에서 열린 THE J와 저저스의 '제1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광일리그 8강전에서 저저스의 박남필이 4회 1사 2·3루에서 적시타를 날린 뒤 2루에서 세이프 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일리그, 목포 블루제이스·첼린저스·THE J·석산고야구단 무등리그, 피지컬·파죽지세·센프렌즈·우리OA가구 준결승

무등기 결승행을 다룬 4강 진출팀이 가려졌다. 1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가 11일 함평야구장에서 개막했다. 11일 광일리그 8강전에 이어 12일 무등리그 8강전이 진행되면서 준결승 대진이 완성됐다. 광일리그에서는 목포 블루제이스, 첼린저스, THE J, 석산고야구단이 4강행을 확정했다. 무등리그에서는 피지컬, 파죽지세, 센프렌즈, 우리OA가구가 준결승에 진출했다. 목포 블루제이스는 이번 대회 개막전에서 송원 블루제이스를 10-0, 5회 콜드승으로 꺾었다. 선발

로 출격한 박문욱이 5이닝 1실점 5탈삼진의 활약으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첼린저스는 뒷심 싸움에서 앞서면서 썩쓰리를 9-1로 꺾었다. 1-2로 맞선 4회 대거 4점을 뽑은 첼린저스는 5회에도 3점을 보태면서 5회 콜드승을 장식했다. 선발 나영석이 5이닝 1실점 6탈삼진으로 승리를 지켰다. THE J는 4회 7득점의 박이닝을 장식하면서 저저스를 10-5로 제압했다. 저저스는 0-10으로 뒤진 4회말 5점을 뽑아내며 추격에 나섰지만 5회말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승리를 내줬다.

석산고야구단은 스파이더를 4-3으로 꺾고 4강행을 확정했다. 1회 3점을 뽑은 석산고는 3-1로 앞선 2회 1점을 보탤었다. 4-1에서 5회말 2점을 허용하면서 1점 차로 좁혀졌지만 리드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톱타자 김민석이 3도루 2득점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무등리그 개막전에서는 피지컬이 뉴욕야시장을 8-3으로 눌렀다. 뉴욕야시장은 선발 정윤휘가 4회까지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켰지만, 3-0으로 앞선 5회말 8실점을 하면서 승기를 내줬다. 파죽지세는 BFB와의 경기에서 16-0, 4회 콜드승을 장식했다. 첫 공격에서 1점을 만든 파죽지세는 2회 6점을 만들면서 초반 싸움에서 앞섰다. 4회 대거 8점을 보낸 파죽지세는 일찍 경기를 마무리했다. 선발 이영후가 8탈삼진, 4번타자 이세준이 4타

점 활약을 선보였다. 센프렌즈는 파트너즈와의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선발 양하성이 1회부터 7회까지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키면서 완봉승을 장식했다. 1회 선취점을 만든 센프렌즈는 3회 1점을 보탤었고, 양하성이 7개의 탈삼진을 더해 파트너즈를 완벽 봉쇄하면서 승자가 됐다. 우리OA가구는 뉴욕을 5-1로 꺾고 대회 마지막 4강 티켓을 확보했다. 1회말 3점을 뽑아낸 우리OA가구는 4회 뉴욕에 1실점은 했지만 남은 이닝을 실점 없이 지키면서 승리를 기록했다. 선발 고현우가 4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고, 마무리 조선주가 2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완성했다. 대회 준결승전은 19일 오전 9시부터 함평야구장에서 진행된다. /김여를 기자 wool@

KIA, 다시 뚝다

14일 KBO 교육리그서 경험 쌓기 11월 지옥의 오키나와 마무리캠프 성영탁 베이스볼시리즈 대표 발탁

'호랑이 군단'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재도약을 위한 결음을 내디뎠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3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최종전을 끝으로 2025시즌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1년 전과는 다른 가을이다. KIA는 지난해에는 정규리그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하면서 한국시리즈 준비를 하며 뜨거운 가을을 보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8위로 추락하면서 관람자로 포스트 시즌을 지켜보고 있다. 우승 도전이 아닌 2026시즌을 위한 준비도 시작했다. KIA 선수들은 광주, 함평 그리고 울산에서 2025시즌 실패를 곱씹고 2026시즌을 위한 준비를 한다. 가장 먼저 교육리그 선수단이 움직였다. KBO가 주최하는 2025 울산-KBO Fall League가 14일 개막해 11월 1일까지 이어진다. KIA도 선수단을 파견해 실전에서 경험을 쌓게 할 방침이다. 삼성, LG, 롯데, NC, 고양, 독립리그 올스타, 대학 선발팀 등 국내팀과 호주 멜버른 에이스, 일본 독립리그 선발팀, 중국 CBA 소속 장수 휴스홀스 등 해외팀까지 11개 팀이 참가해 예선 13경기씩 소화한다. 경기는 울산 문수구장, 김해 상동구장, 창원 마산구장, 가장 KBO 야구센터에서 열리며 예선리그 결과에 따라 31일 준결승전을 치르게 된다. 11월 1일에는 결승전이 진행된다. 교육리그 선수단은 실전 준비를 위해 지난 9일 함평 첼린저스필드에서 재소집돼 위망업을 시작했다. 프로 데뷔 시즌을 보낸 외야수 박재현, 박현 등 신인 선수들은 물론 가능성의 시즌을 보낸 7년 차 투수 김현수 등이 '가을 무대'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의 김선빈(오른쪽부터), 한준수, 박민이 1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박정욱 트레이닝 코치와 러닝을 하고 있다.

올 시즌 개막전부터 최종전까지 엔트리를 지킨 10년 차 김규성도 13일 선수단과 함께 울산으로 가 초반 경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잔류조와 재합군 선수들을 합평 첼린저스 필드에서 재정비 시간을 갖는다. 1군에서 활약한 선수들은 몸관리에 중점을 두고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펼친다. 10일부터 훈련을 시작한 선수단은 웨이트와 보강, 러닝 등을 하면서 아쉬웠던 시즌을 돌아보게 된다. 손톱 부상으로 타격이 어려운 내야수 박민도 교육리그 참가가 불발 돼 챔피언스필드조에서 훈련을 한다. 분위기를 이어 11월에는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서 '지옥 훈련'이 펼쳐진다. 특히 수비에서 강도 높은 훈련이 예고된다. KIA

는 올 시즌 123개의 실책을 기록하면서 불명예스러운 실책 1위가 됐다. 시즌 막판 이범호 감독이 직접 나서 신예 선수들의 특별 수비 훈련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수비'가 2026시즌 키워드가 됐다. 투수들도 수비에서 약점을 보였던 만큼 투타의 세밀하면서도 강도 높은 훈련이 전개된다. 올 시즌 KIA 마운드의 '셋발'로 등극한 성영탁은 고척에서 특별한 시즌 마무리에 나선다. 성영탁은 12일 발표된 K-BASEBALL SERIES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프로 2년 차에 눈부신 데뷔 시즌을 보낸 성영탁은 팀에서 유일하게 대표팀에 선발돼 11월 체코와 일본을 상대로 평가전에 나선다. /글·사진·김여를 기자 wool@kwangju.co.kr

‘장군 명군’ SSG-삼성 누가 앞서갈까

오늘 준PO 3차전...앤더슨-원태인 선발 대결



SSG 랜더스 에이스 드루 앤더슨과 삼성 라이온즈의 토종 에이스 원태인이 2025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준PO·5전 3승제) 분수령인 3차전에서 선발 대결을 펼친다. 두 선수는 1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준PO 3차전에 선발 출격한다. 두 팀은 1승 1패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두 투수의 활약 여부는 시리즈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앤더슨은 올 시즌 정규리그 30경기에서 12승 7패, 평균자책점 2.25의 특급 성적을 거둔 에이스다. 특히 탈삼진 245개를 기록해 프로야구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 역대 2위 기록을 썼다. 삼성을 상대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올 시즌 두 차례 삼성전에서 1승, 평균자책점 2.08을 기록했다. 4월 9일 삼성전에서 7이닝 동안 무려 13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1실점 했고, 8월 6일에는 6이닝 2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삼성 주요 타자들을 상대로도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올 시즌 50홀런-150타점 기록을 세운 삼성 외국인 타자 르닌 디아즈를 상대로 6타수 1안타(1피홈런) 피안타율 0.167를 기록했다. 앤더슨은 지난해에도 디아즈를 상대로 3타수 무안타로 꺾었다. 앤더슨은 또 김성운, 구자욱, 이재현을 상대로 모두 피안타율 0.167을 찍었다.

강민호에겐 6타석 4타수 2안타 2볼넷으로 밀렸다. 변수는 몸 상태 회복 여부다. 앤더슨은 최근 장염 증세에 시달려 준PO 1, 2차전에 등판하지 못했다. 그는 그동안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서 체중이 3kg 빠지는 등 컨디션 난조에 시달렸다. 이에 맞서는 원태인은 지난 7일 NC 다이노스와 와일드카드 결정전(WC) 2차전 이후 5일 만에 등판한다. 원태인은 올해 정규시즌 27경기에서 12승 4패, 평균자책점 3.24로 활약했고 WC 2차전에서 도 6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올 시즌 SSG를 상대로는 3경기에서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3.71을 기록했다. SSG 간판타자 기예르모 에레디아에겐 매우 약했다. 6번 만나 5타수 4안타 1볼넷, 피안타율 0.800으로 밀렸다. 최지훈(10타수 5안타), 한유섬(8타수 3안타), 고명준(9타수 3안타)에게도 많은 안타를 허용했다. 원태인은 이날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이닝을 던져야 한다. 삼성은 WC 2경기과 준PO 2경기를 치르면서 많은 불펜을 소모했다. 외국인 선발 자원인 헤르손 가라비토와 아리엘 후라도도 준PO 3차전에선 힘을 보태기가 어렵다. 두 선수는 각각 WC 2차전과 준PO 2차전에 깜짝 불펜으로 등판했으나 일정상 준PO 3차전에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연합뉴스